

짓고 오는 98년까지 7백65KV변전소를 남서울·신당진등 4개소에 건설하는 한편 발전소와 이들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총연장 3백25km의 송전선로 3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韓電은 이와함께 7백65KV송전과 관련한 구조물 및 장비중 파이프형 타워를 지난해말 개발한데 이어 올 12월까지 앵커세클등 송전용 금구류를, 내년말까지는 7백65KV 차단기를 각각 개발할 방침이다.

韓電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7백65KV 송전선로 건설관련 시공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한전 송변전처가 밝힌 7백65KV 격상 사업계획에 따르면 제 1단계로 현재 3백45KV로 운전중인 남서울 및 신당진변전소와 현재 7백65KV변전소부지로 선정된 신태백 및 신양평등 4개변전소 부지에 대해 현황파악을 이달중 완료, 금년말까지 설계 및 지적측량, 환경영향평가등 정밀검사를 한후 내년 상반기 전원특례법의 승인을 얻어 오는 96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는 9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와함께 이 기간중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신당진변전소간 40km, 신당진변전소에서 남서울변전소간 1백24km, 신양평변전소에서 신태백변전소간 1백61km등 총연장 3백25km에 이르는 3개 송전선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 오는 99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동해남부에서 신태백 변전소간 40km,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신당진변전소간 40km등 2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한편 오는 2002년부터는 신태백 및 신양평변전소에서, 2003년부터는 남서울 및 신당진변전소에서 7백65KV 송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 會員社 動靜 ◆

## 金星產電(株), 승강기 生産 3만대 돌파

金星產電(株) (代表: 李喜鍾)가 국내 승강기업체로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누적 생산 3만대를 돌파했다.

금성산전은 지난 68년 엘리베이터 사업에 참여한 이후 25년만에 3만대를 생산, 최근 창원공장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같은 생산 실적은 국내에 보급된 승강기가 총 7만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전체 수요의 43%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 89년에 누적생산 대수 1만대를 돌파한 금성산전은 신도시 건설 붐과 국내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수요증가에 힘입어 92년에 2만대 생산을 넘기는데 급격한 수주 실적 증가를 기록중이다.

금성산전은 지난 87년 창원공장을 준공, 현재 국내최대 규모인 연간 8천대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층용과 저층용, 유압식 엘리베이터등 8대의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동양최대의 시험탑을 운영, 自社 생산제품을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과 기능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성산전은 분당 6백m의 고속엘리베이터 설계능력을 갖추는 등 고속엘리베이터 제작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술 취득단계를 넘어서 현재 초고속 인버터엘리베이터, 인공지능 엘리베이터, 원격관리 시스템등 안전성과 편리성이 강화된 첨단제품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차세대 엘리베이터인 리니어엘리베이터를 지난해부터 개발에 착수하는등 외국업체와의 신제품 기술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성산전은 앞으로 5년간 매년 1백억원씩 신규 투자를 실시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를 통해 오는 2000년에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품목에서만 1조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 金星電線(株), 特高壓 배전선로용 水密型전선 개발

金星電線(株)이 국내 최초로 특고압 배전선로용 水密型 전선을 개발했다.

금성전선 전선부문 (代表 : 權炆久)은 도체와 도체, 도체외층과 절연체 사이에 킴파운드를 완전 충전시켜 빗물이나 습기의 침입으로 인한 부식을 막고 부식에 의한 斷線으로 발생하는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22.9KV급 특고압 수밀형전선 (OC-W 38SQ)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 공급에 나섰다.

이번에 금성전선이 개발에 성공, 한국전기연구소의 시험을 거쳐 상품화한 수밀형 전선은 현재 시공에 나와있는 제품보다 고난도의 제품으로 수밀 컴파운드는 도체인 銅과의 밀착성이 우수하고 내밀성이 뛰어나 알루미늄도체를 사용하는 기존 배전선로용 가공전선보다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同社は 수밀형 전선이 우절기에 집중발생하던 옥외용 배전선로의 고장사고를 예방, 전력공급과 배전선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배전계통의 옥외용 가공전선은 주로 강심알루미늄 연선(ACSR) 전선을 사용해왔는데 염해지역이나 공장지역에서 雨期때 알루미늄 도체의 노출부나 피복제거 단선부분으로 수분이 침투, 부식이 발생하거나 장시간 사용시 빗물의 침입으로 전력공급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각종 전기사고의 원인이 되어왔다.

## (株) 又榮, 커넥터 플랜트 輸出 추진

對中國 커넥터 플랜트 수출이 국내 처음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커넥터 전문 생산업체인 又榮 (代表 : 朴基漸)은 최근 中國 중앙정부 軍需당국과 貴州省 인근 군수공장을 커넥터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플랜트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4백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번 커넥터플랜트 수출은 턴키베이스로 국내 커넥터 기술 및 생산장비를 일체 국내에서 조달하게 되는데 현재 납품 일정조정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對중국 플랜트 계약이 성사될 경우 국내업계의 커넥터 수출이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 (株)泰進電氣, UPS 국내 최초 ISO 9002 인증 획득

(株)泰進電氣 (代表 : 李浩哲)는 동종업계 최초로 미국품질경영 인증기관인 INTERTEK SERVICES CORP. 사로부터 ISO-9002 규격을 획득했다.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자동전압조정기(AVR) 등 정원장치를 주생산 / 판매하는 이 회사는 동종업계 최초로 품질보증마크인 “P”, “Q” 마크를 획득하고 전 품목 “전”자 마크를 획득하여 일찌기 품질향상에 주력하여 왔으며, 93년 1월부터 ISO인증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의 지원아래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요구품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ISO 획득 추진결과 금년 2월 8일자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종업계 최초로 무정전전원장치(UPS), 자동전압조정기(AVR) 및 충전기등 이 회사제조 전품목에 대하여 생산에서 시험검사 및 설치등 ISO-9002가 요구하는 전공정에 대하여 국제품질인증인 ISO-9002를 획득하여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증받은 것이다.

INTERTEK사는 ISO 품질규격인증에 대하여 미국의 RAS와 네덜란드의 RVC 인증을 동시에 획득 보유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주생산품인 UPS, AVR등에 대하여 국내판매 확충은 물론 수출증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INTERTEK 사는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는 ETL, LABTEST등 세계 유수의 시험기관 자매회사로써 그 모체는 INCHCAPE TESTING SERVICE(ITS)라는 그룹으로 미국의 인정기관인 RAB와 네덜란드의 인정기관인 RVC에서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다.

또한,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는 1993년부터 ISO 규격에 대한 품질인증 보급을 위하여 전담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ISO 규격에 대한 품질인증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회원사 품질관리등급 획득현황 -

업체명	대표자	사정상품명	사정등급
세 광 기 전	설 동 형	폐 쇄 배 전 반	2을 등급
수 영 전 기 기 업	배 수 익	무 정 전 전 원 장 치	1 등급
시 온 전 기(주)	김 중 균	폐 쇄 배 전 반	2을등급

### ● 회원사 안내 ●

- 東洋特殊金屬 (代表 : 張秀富) 본사 이전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38-1 (평택시 공업단지내 4-2)  
Tel. (0333) 656-8862
- 勝和重電機(株) (代表 : 薛東亨)가 '94. 3월 2일자  
세광기전으로 상호변경  
\*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없음

◆ KOEMA 消息 ◆

## 1994年度 제1차 公認認證試驗 免除對象品目 選定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重電機器 試驗基準 및 方法에 관한 要領(商工部 告示 第'92-16號, '92. 5. 4) 제 7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4日 1994年度 제1차 “重電機器 品質管理委員會”를 열고 日進電機工業(株) 등 6개 업체에서 신청한 4개 품목 15개 제품 36건을 면제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